

"인천세계도시축전" 송도국제도시서 개막

세계 120개국의 500여 도시와 1300개 기업이 참가



◇ “내일을 밝히다” 를 주제로 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이 10월 25일까지 80일간 열린다.

"내일을 밝히다."를 주제로 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7일 오전 10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도시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막을 알리고 80일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인천시장,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귀빈과 경제인 2천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진대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안상수 시장의 환영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세기가 국가들 간에 경쟁하는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의 시대'"라고 하면서 "도시의 경

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 "인천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280만 인천시민들이 가슴을 활짝 펴고 개방과 경쟁에 적극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환영사에서 "도시축전은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니라 미래도시의 참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감동과 환희의 시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의 현장을 보여드리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날 오후 7시에 주행사장 특설 무대에서 도시축전 홍보대사인 소녀시대를 비롯해 MC몽, 포미닛, 채연, 전진, 샤이니, SG워너비 등

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무대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내일을 밝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송도국제도시내에 있는 24만7천㎡의 주행사장에서 10월25일까지 열리게 되며 이 기간 축전에는 국내외 137개 도시가 참가하는 세계도시관을 비롯해 첨단 정보통신시설, 지구촌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펼쳐 보이는 전시행사, 국제 콘퍼런스, 문화예술행사 등 68개 프로그램에 90여개 국가, 1천5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도시의 바람직한 모델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 첨단기술을 보여주게 되는데 '2009 대한민국 로봇대회'와 '세계로봇축구대회'가 치러지는 '로봇사이언스 미래관'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로봇 드라

마'를 상영하고 4~6m 크기의 로봇동물,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 발사체 '나로호' 모형물을 관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축전기간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세계환경포럼, 세계도시 물포럼 등 20여건의 국제콘퍼런스가 열리며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지도자들이 모여 도시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인천시는 축전이 열리는 80일간 외국인 50만명을 포함해 총 700만명이 인천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이중 500만명이 주행사장을 관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행사안내는 세계도시축전 홈페이지(www.incheonfair.org)를 참조하면 된다.

/본사종합

자연을 방불케하는 도심공원-조양공원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나무숲이 무성하고 공기가 좋으며 물 맑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일요일을 이용하여 베이징시 조양구중심에 위치한 베이징 최대의 도심공원--조양공원(입장료 5원)을 찾았다.

조양공원 서문어귀에는 호금도 주석게서 제사를 쓴 올림픽보정이 놓여져 있었고 북문부근에는 위대한 음악가 신성해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앞뒤로 시원한 분수가 물을 뿌고 있었다.

국가4A급경관구인 조양공원의 남북길이는 2.8Km,동서너비는 1.5Km,총 면적은 289헥타르, 녹화율은 87%, 수면면적은 68헥타르에 달하여 베이징 4한 도로내의 최대 도심공원인데 198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고 1999년에 건국50주년 중점건설항목으로 지정, 2004년부터 정식으로 개방했는데 녹지, 수면시설, 오락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을 모두 겸비했다. 조양공원은 북해공원이나 경산공원처럼 고색이 찬연하고 금빛이 찬란한 고대궁전과 루각이 없고 고목들을 볼 수 없지만 푸르른 나무, 맑은 물, 푸른 언덕과 구전한 오락시설로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는 제격이었다. 그래서 평소 드바쁜 일상에 쫓기던 도시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여유작작한 하루를 보내며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군 한탄다. 이 공원은 대체로 중심활동구, 체

육건신구, 생태구, 윌립특화구, 종합복구구, 행정관리구 등으로 나누었으며 중앙수장식수림, 장군림, 수상유람구, 남문경관, 웅감자천지오락원, 예술광장, 생태계곡 등 20여개 풍경구로 조성되었다.



필자는 분수구를 지나 길 양편의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워 녹을 짙은 나무그늘터널을 방불케하는 작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초목이며 관목이며 꽃들이 물에 비치여 경치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려했으며 가끔가다 빨갛고 노랑고 분홍색 나는 여러가지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웃음을 지으면서 유람객들을 반겨주었다. 문득 이름 모를 큼직한 새 몇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푸드득하고 깃을 치며 하늘로 날아갔다. 이곳은 실로 대자연속

의 진경풍을 방불케 한다. 이 공원의 물을 매우 맑았는데 물속의 수초가 하늘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도 환히 보였다. 필자는 배를 이를 하면서 손을 물속에 넣었다.



순간 시원한 기운이 손을 통해 마음속으로 스며들면서 몸속의 열기가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 한결 정신이 거뻐하고 상쾌했다. 배 놀이를 마치고 물을 잔뜩 마시고 오솔길을 걷노라니 여러가지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왔다. 어떤때에는 급하고 짙고, 어떤때에는 유유히 길고, 어떤때에는 맑고 우렁차고 또 어떤때에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새소리를 듣노라니 산속으로 찾아온 착각이 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어떤 유람객들은 잔디우에

/베이징=박광의 기자

인천공항, 재즈공연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는 8월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2009 Jazz Summit Love Actually' 라는 타이틀로 재즈공연을 개최하고 프리포즈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가 신혼부부, 가족, 연인 등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사랑"

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착안, 사랑을 테마로 이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다. 첫날인 27일 '고유진(플라워)'과 '어빈블루'를 시작으로 국내 타악기 연주의 대표주자 류복성이 이끄는 라틴재즈 올스타즈 공연 등 국내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이

20일간 매일 출연한다. 프리포즈 이벤트는 유명 MC의 진행으로 펼쳐지며 이벤트 신청시 공연 중간에 아티스트의 축하 속에서 프리포즈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경품도 제공된다.

/재동

중국의 작은 충북 '정암촌'

중국 길림성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 돼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충북출신 주민들이 모여 만든 '정암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60여 년이 넘도록 끊어졌던 충북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암촌 동포들의 삶과 애환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면단위 격인 중국 내 연변중국동포자치주 도문시 양수진.

이곳에서부터 다시 비포장도로를 30여분쯤 달리다보면 작은 시골마을인 '정암촌'이 자리잡고 있다.

'정암촌'은 1938년 일본의 만주 지역 식민지 정책에 의해 충북 강원과 보은, 옥천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집단 이주하면서 세워진 중국 내 충북인 마을이다.

당시 일제는 북한도에 가면 땅과 집을 주겠다고 속여 80여 세대를 모집해 이주시켰지만 절반 가량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가난한 농민들만 남아 움막을 짓고 정착했다.

이듬해 마을 뒤산에 있는 정자바위에서 이름을 따와 '정암촌'이라 불리게 됐으며 지금도 100여 가구가 남아 충청도의 전통 문화를 간직하며 살고 있다.

함경북도 사투리가 지배하는 연변지역이지만 '정암촌' 주민들만은 아직도 충청도 사투리가 가까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연변대에서는 '정암촌' 사투리가 표준 조선어에 가장 가깝다며 마을을 찾아 연구활동을 벌였을 정도다.

특히 청주에선 이미 자취를 감춘 '청주아리랑'이 구전되고 있고 마을주민 대다수가 충청도 가락에 맞춰 농악을 즐길 정도로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또 마을 북쪽에는 귀틀집과 격자문 등 충북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남아있는 초가집 3~4채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처럼 충북의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정암촌'은 지난 1990년대 말 학자들에 의해 존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연구와 보존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충북대 학생들은 지난 2006년부터 벌써 4년째 정암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대 학생 등 40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한 정암촌과 양수촌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근 양수촌까지 봉사활동을 확대했다.

임동철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으로 지난

들은 농민들의 일손을 돕거나 마을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정보통신학교 4학년 홍종혁 학생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가까운 곳에 있어 처음엔 낯설기고 했지만 정서와 말투가 비슷해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며 "마음 속으로 정을 나누다보니 헤어질 땐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성대한 마을 잔치를 열고 고국에서 찾아와 봉사활동을 펼친 젊은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암촌 한영옥 중국 공산당 서기는 "매년 고국에서 찾아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국 동포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또 충북대 임동철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교수들과 동문들도 마을잔치에 직접 방문해 마을 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북대 이외에도 올해에는 처음으로 충청북도의사와 차원의 의료봉사활동도 이뤄졌다.

충북도 자원봉사센터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정암촌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함께 진료 활동을 벌였다.

지난 6년 전부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 벌였던 해외 무료 진료활동을 처음으로 '정암촌'에서 가진 것.

오국환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충북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다른 곳보다 의미있는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의사 6명과 간호사 5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려진 의료봉사단은 정암촌 주민 280여명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간단한 구급약품도 나눠줬다.

특히 고관절 등 수술이 필요한 3~4명의 주민들은 향후 의사회가 직접 충북으로 초청해 무료수술까지 시킬 계획이다.

민간단체는 물론 지자체들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곳에 살던 이민 1세대 32명은 지난 2000년 62년 만에 충청북도의 초청으로 고향에 다녀왔다.

도는 이후 격년제로 5명 안팎의 이주민 2~3세대를 초청, 선진농업을 전수해주고 있으며 청원군도 지난 2007년 이주민 2세 8명을 6개월 간 머물게 하면서 매년 농업 분야 선진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임동철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으로 지난

2001년 구성된 '정암회'도 매년 마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각계 관심과 지원, 교류는 정암촌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2004년 충북도청 초청으로 6개월 동안 과산의 한 김치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이상원(35)씨.

정암촌으로 돌아온 이 씨는 대형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부터는 늦은 나이에 농업대학에도 입학했다.

이 씨는 "김치 공장도 운영해 볼 생각이었지만 시골마을이다보니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며 "초청 행사 이후 꿈이 생겨 대학도 다니게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청원군 내수를 다농식품에서 일한 한영옥(씨)씨도 정암촌으로 돌아와 장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지금은 매일 3톤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변화는 마을 주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충북 각계의 관심과 지속적인 교류는 정암촌이 지난 2003년 우리나라 60년대 새마을 운동 격인 길림성재정지원시범촌으로 지정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1960대식 초가집들은 벽돌집으로 바뀌었고 비포장이었던 마을 안길도 깔끔하게 포장됐다.

충북과 정암촌 간 교류가 있기까지는 충북대와 연변대의 교류도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양 대학은 지난달 29일 연변대학교에서 임동철 충북대 총장과 김병민 연변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양 대학의 학생과 직원 교류에 이어 방문 교원에 대한 교류의 길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임동철 충북대 총장은 "연변의 역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가 살아지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연변대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교류시스템은 모두 갖춰진 만큼 그간의 협약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는 노력만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양 대학은 지난달 31일 연변대에서 한달 전 아학연수에 참여했던 충북대학교 학생 18명에 대한 아학수료식도 가졌다.

김병민 연변대 총장은 "19년 전 임 총장과 시작된 인연이 양 대학을 넘어 양 지역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류를 통한 양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마움 마음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충북대 학생 등 40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한 정암촌과 양수촌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중국 유학에서 대학교 선택은 필수적 과목

차별화된 경력과 실력을 쌓아야만 유학생생활이 무난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한국기업들이 현재 5만여 기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 또한 70여만 여명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0년에는 그 수가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항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5천여명의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데이터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은 중국유학의 비전에 있어 긍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 개월 지나면 중국 대학들에서는 새 학기를 맞게 된다. 우선 중국 유학을 꿈꾸는 유학생들을 위하여 중국 유학에서 대학교의 선택이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교육 전문가들은 몇가지로 나누어 조언해 주고 있다.

문: 중국유학을 생각한다면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까?

답: 베이징대 유학생관리과 왕평교수: 지역적인 문제는 크게 비용 문제와 한국유학생이 많은 곳과 적은 곳 두가지 정도로 좁힐 수 있다. 한국유학생이 많은 곳 보다는 적은 곳이 좋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한국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 될 이유는 겨우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그 한가지 밖에 없다. 그 단점만 제외하면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본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에서 적응함에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같은 한국인들 아니겠는가? 한국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현지적응에 있어 유익하다. 현지 적응이 빠를수록 불필요한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의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제어하는 것이지 한국인이 많다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공부한다면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의지가 없는 학생은 학업에 소홀함은 물론 정신적인 외로움까지 더해져 더욱 유학생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디든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3개월 가기가 쉽지 않다. 중국유학 후 3개월 정도면 한국생각이 나고 가족들 생각이 나고 학업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는 때이다. 이때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용적인 부분. 정말 싸게 비지떡이다. 가능하다면 배움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당 10원의 푸다오 한다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50원 푸다오를 하여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면에서의 효과가 크다면 오히려 50원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이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삼류대학은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삼류이나 일류이냐이다. 중국 유학생중에 칭화대, 베이징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삼류대학생들도 많이 보아 왔고 한국 지방대학의 일류 학생도 보았다. 이제 중국 유학이나 미국 유학이나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얼마만큼 더 차별화된 경력과 실력을 쌓아야만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한국의 젊은 유학생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문: 중국대학 본과에서 공부한 후 받은 졸업장은 중국학생이랑 같은가?

답: 중국 칭화대 유학생모집관공실 황원희교수: 각 대학이 요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졸업장과 전공 분야의 학위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의 의도가 이 졸업장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4년제 대학 졸업장으로써 또 학위로서 인정되고 법적 효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내용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중국교육부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장과 학사학위이다. 다만 외국인이 중국인과 함께 공부했을지라도 졸업장의 일련번호 학번에 구별이 있다. 자국민과 외국인으로써의 구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졸업장을 가지고 학사 학위를 가지고 4년제 졸업생으로써 법적 인정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문: 전공수업 이해를 위한 중국어 수준은?

답: 중국 복단대학 유학생관리과 유정화교수: 이 질문이 정말 중국 유학의 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것 같다 어떤 학생은 hsk 가 몇 급정도면 전공수업에 어려움이 없냐요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대외 한어과의 경우라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표준어로 가르키고 각 학년별 기초에서 차츰 고급단계의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라 사실 대외 한어과가 요하는 hsk 3급정도만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문제는 전공 분과생들인데, 중국인학생들 베이징대학, 칭화대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중국의 100위권 내의 대학들의 우수한 중국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경쟁해가며 수업을 따라감에 있어 필요한 중국어 실력. 중국에서 최소한 중학교부터 중국학교에서 중국인과 같이 공부해온 학생들도 쉽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최소 7~8년이상 현지 중국인과 같이 수학, 영어, 과학 등을 중국어로 배워온 학생이면서도 나름 공부에 애착이 있고 열심히 있는 학생들도 “코피”를 쏟으며 공부해야 좋은 학점을 받고 따라갈 수 있다. 본과 교수님들은

표준어를 쓰는 선생님도 있고 중국학생조차도 책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방안을 쓰는 교수도 있다. 칠판에 한자 또박 또박 써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대학 입학의 허가 기준이 hsk 6급이 입학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명의 학생중 겨우 10%도 안되는 학생만이 무사히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중도 포기하거나 대외 한어과로 편입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택한다. 자괴감이란 말할 필요도 없다. 칭화대나 베이징 대학은 수재중 수재들만 오는 중국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문대학 이입이다. 이런 대학은 3%의 졸업생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중국 유학에서 위에서 설명한 대학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유학생장본인이 어떻게 중국 유학 생활에 빨리 적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요즘따라 하늘은 비도 내리지 않고 그냥 구질거리기만 한다. 찌뿌둥한 하늘을 쳐다보니 뭔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어릴 때는 해와 달을 얻어주기도 하고 날짐승들의 투정도 말없이 받아주는 하늘이 무지 좋기만 하였다. 어린 가슴속엔 늘 벅찬 미지의 세계였던 하늘. 때문 그 하늘에 오르려는 절없는 생각에서 나무위에 기어 올라 하늘에 오르는 시늉도 하곤 했었다. 한때 그러럼 동경해 마지않던 하늘이 내 어린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을 줄이야. 아마 소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된다. 그때 어문지력경연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에 참가한 적이 있다. 하나하나 열심히 적어내리다가 괄호안에 알맞는 말을 써넣기 문제에서 문득 필을 멈추었다.

<<_____ 하늘>>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문제였다. 그때 무심결에 창밖에 눈을 던진게 잘못이었다. (하늘은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도 슬피 우는가?) 그러자

푸르른 하늘

흑룡강성 계동현 조선족중학교고3학년2반 리운봉

평소에 <<푸른 하늘>>이라고 입이 당도록 가르쳐주던 선생님의 말씀이 그만 가뭇없이 사라지고 괴상한 말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서 <<울고 있는 하늘>>이라고 반듯하게 적어놓았다. 이튿날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한테 확 뿌렸다.

<<야, 너의 머리는 돌로 된 것이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준 것도 다 틀리니? 하늘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울어?>>

그날 나는 <<울고 있는 하늘>>이라는 글 때문에 톡톡히 보상을 받았다. <<푸른 하늘>>을 울며겨자 먹기로 50벌 써야 했다. 함께 유희도 높아주고 앓는 나를 업고 땀을 쏟으면서 병원까지 뛰어가시던 선생님이였다. 그런 선생님이 엿가에 항상 부모보다도 더 존경하셨는데 그날은 몹시 미웠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나는 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꾸만걸 물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언제나 성지처럼 받드는 착한 아이로 고착된 것이 다. 대신 그러럼 동경하던 하늘과

답을 쌓아야 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억울함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왜 선생님이 씌어준 밥만 먹어야 하고 선생님의 말을 진리라고 들어야 하는가? 만일 선생님의 말씀대로 꼭 푸른 하늘만 정답이라면 반답은 쪽배요, 반달에 토끼가 있다는 가사도 틀려야 하지 않는가? 한때 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이 왜 하늘을 울 수 없다고 하셨는지?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슬픈 표현으로 다가온다. 하늘도 때론 울고 싶을 것이다. 한때 우리에게 우는 하늘이 아니라 항상 푸른 하늘이어야만 한다면 하늘은 너무 억울할 것이다.

울고 있는 하늘, 무표정한 하늘, 시무룩해진 하늘... 이런 하늘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적어도 괜찮은 요즘이 좋다.

지금 저 창밖 하늘은 내가 이런 글을 쓴다고 눈을 찡긐해본다.

/지도교원:송련희

무순시 조선족1중 올해 대입시서 “풍작”

600점이상 10명, 북경대학에 2명 합격



◇사진은 600점이상을 취득한 10명 학생들. 좌로부터 황홍, 정박문, 홍연, 계관, 김옥당, 윤미연, 김옥매, 강시우, 라금화, 정춘연학생.

무순시 조선족제1중학교가 2009 대학입시에서 근년래 최고로 좋은 성적을 따내 전교 사생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올해 이 학교에서는 210명의 고3학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였는데 국가중점대학 점수선에 들어 이미 전국 여러 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30명, 그중 10명은 600점이상을 따내 국가명문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총 점수 652점으로 무순시문과장원의 월계관을 쓴 김옥당학생과 총 점수 636점을 따낸 윤미연학생이 이미 북경대학 입학통지서를 받았으며 638점을 따낸 정박문학생은 복단대학에, 632점을 따낸 강시우학생은

북경외국어대학에, 628점을 따낸 라금화학생은 절강대학에, 626점을 따낸 장춘연학생은 동북대학에, 626점을 따낸 황홍학생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에, 614점을 따낸 계관학생은 남개대학에, 611점을 따낸 김옥매학생은 중앙민족대학에, 604점을 따낸 홍연학생은 동북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성중점대학점수선에 든 학생은 41명, 그들도 모두 지방한 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나머지 학생들도 100% 일반대학의 점수선에 들어 요즘 육속 여러 대학의 입학통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올해 무순시 조선족제1중학교가 대학입시

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취득한데 대해 이 학교 김광산교장은 학교지도부의 진취적인 지도와 사생들의 분발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요약했다. 3년전 초고중이 합병되고 지도부가 개선되면서 이 학교도 큰 진통을 겪었다. 김광산교장을 위수로 한 새로운 학교지도부는 조선족사회의 인정을 받자면 우선 교학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정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교원들의 사업열성을 북돋아주었다.

지난 1년래 교내시범과를 25차례 진행하였으며 시우수과에 8차례, 성우수과에 12차례 당선되었고 시급골간교원이 7명, 성급골간교원이 2명 증가되었으며 국가, 성, 시급 과제 7개를 쟁취해 78명 교원이 공동완수하였다. 담임 경험교류회를 7차례, 교학경험교류를 1차례, 교육강좌를 5차례 진행하였고 우수담임 10명, 우수교원 37명, 문명반급 11개를 선정해 표창하였으며 시급우수교원에 2명 추천하였다. 학교책임자들이 의무적으로 3만자에 달하는 교육이론독서필기를 하였으며 교장은 120교시, 교학담당부교장은 140교시의 교학을 경청하였으며 교원조의 교수연구활동에 10여차례, 전문과목 연구토론회모임에 8차례이상 참석하였다.

학교지도부와 전체 교원들이 이렇듯 분발노력한 보람으로 이 학교에서는 교원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기꺼운 국면이 출현, 그 결실은 고스란히 대학입시에 반영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요녕신문 이덕권 기자



新华报社换钱所



中国航空售票处



全方位为在韩中国各族同胞提供优质服务

赴中国各地**特价飞机票**、各类**赴韩邀请手续**、**结婚、离婚及领养手续代办**、**公证、认证**及**加快速度**、**各种法律问题免费商谈**、**H-2再入境及其它各类入境疑难问题咨询**、**公伤、产灾、退職金及拖欠工资免费商谈**、**中国驾照换韩国驾照**、提供出差现场翻译、赴韩国**留学签证**全程代办、**人民币与韩币自由兑换**且**换率高**。

联系电话: **02-866-8188, 02-6083-7379, 010-5628-9779, 010-7773-1688**

地址: 首尔市九老区加里峰2洞88-18

地点: 首尔7号地铁南九老站3号出口

찌든 때, 얼룩 제거에 탁월한 효과, 악취제거, 살균기능...

무독성, 무공해, 인체에 무해하며 저 거품으로 물 적약 효과

유독가스가 없어 쾌적한 내부환경 조성...

업소전용세제출시

야채/과일 전용 세정제

- * 무독성 고급 야채 과일 세척세정제.
- * 순식물성 세제로 야채 과일 세정에 안전함.
- * 각종 세균및 잔류농약 제거 능력이 탁월함.
- * 인체에 무해한 보건복지부 인가 1종 세제.

환경은 우리의 미래

1종, 천연세제

저희 업소의 주방식기는

친환경세제를 사용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순식물성 세제"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슬업추출액 친환경세제

(주) 엔크리너

- 무독성
- 생분해성(99.9%)
- 비부식성
- 비인화성
- 비폭발성
- 강력한 세척력

전화 : 02)2678-7277

02)2676-6866

010-3912-0304

www.okcld.co.kr

2008년模范.先进单位 - 2008년 모범. 선진단위



为宾中国旅行社--中国航空售票处

웰빙중국여행사--중국항공대표소

**** 법무부출입국 중국동포 새 정책 무료상담 ****







오성그룹관광부-웰빙중국여행사는 정규허가업체(등록번호:000022)로서 중국남방항공, 국제항공, 하만항공, 해남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위탁을 받고 항공권 판매를 예약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행사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중국 현지직인들로서 의 사소통이 원활하며,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혹시 불편일정으로 인하여 오실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팩스로 비영리요 예약 가능하며 무료로 경인지기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한중 수속서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本社は隶属中国独资企业-五星集团公司下属的国际旅行社。本社持有在韩国营业许可证书，并聘用中国职员，以专业、热情周到的服务，为您提供价格最合理的机票。因工作不能亲自访问的顾客，只需传真复印件给我社，确认汇款后全国各地免费邮寄。

五星集团外国人服务中心竭诚为您服务各种疑难商谈，同时代理各种疑难韩中手续。如家属邀请、领养、取得国籍、DNA检验、居留资格变更、签证、反签证、公证、认证等。

特别专业办理不回国合法（非法）居留者（汉族）结婚。

持有中国驾照执照并合法身份者，换取韩国驾照执照。

帐号：472910086-28807
[하이니행]
예금주：강 호

중국어명저중 한국명저중으로 교환해 드림.

中国语：031)234-5888 한국어：031)235-5155

传 真：031)898-8858 手 机：011-1718-5188

地 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1(2F) 水原站附近

中国民航售票处

飞往中国大陆的所有航班

热线 0505-808-1688



中国东方航空(MU)
China Eastern Airlines



中国国航(CA)
Air China



中国南方航空(CZ)
China Southern Airlines



电话: 02-837-7252
手机: 010-9574-1688

航段	班期	航班号	出发	到达	航段	班期	航班号	出发	到达	
仁川-沈阳	每日(国台)	CZ682	12:45	13:30	仁川-大连	每日(国台)	CZ686	12:00	12:00	
仁川-大连	每日(国台)	CZ686	12:00	12:00		仁川-北京	每日(国台)	CZ318	12:50	13:45
仁川-哈尔滨	周末台	CZ694	18:50	20:00		仁川-上海	每日(国台)	MF8901	10:45	11:30
仁川-长春	每日(国台)	CZ688	13:35	14:25	每日(国台)		MF052	12:55	13:40	
仁川-烟台	周末台	CZ674	14:35	15:40	每日(国台)		MF050	15:35	16:10	
仁川-威海	周末台	CA144	15:10	16:30						
仁川-青岛	每日(国台)	CA120	14:00	14:20			MF034	19:55	20:30	

代办各种翻译公证
大使馆认证/签证
亲属邀请/结婚签证
离婚手续/亲子鉴定

각종서류대행
번역|공증|대사관인증
중국비자/신청초청
결혼서류/이혼수속

中国民航售票处

서울고속국도회2층 2호선대행역 구로중학교영공막
전화 (电话): (0505)808-1688
팩스 (传真): (0505)808-1689
외환은행 080-18-53055-5 (매금주 이월권)